

# 코로나19 위기대응 : EU 회원국의 자영업자를 위한 소득보장정책 II

유로파운드 (Eurofound)

『국제노동브리프』 2021년 7~8월호 이슈별 심층분석에서는 유로파운드(Eurofound)에서 발행한 *COVID-19: Implications for Employment and Working Life*의 제4장 “Income Support for Self-employed Workers”의 내용을 연재한다. 지난 호에서는 도입, 자영업자를 위한 소득보장정책 개발, 수급자격 요건을 소개하였고, 이번 호에서는 지원금 수준 및 지급기간, 지원금 수급 및 예산 규모, 소득보장제도의 파급효과, 정책적 함의를 살펴본다.\*

## ■ 지원금 수준 및 지급기간

자영업자를 위한 소득보장제도는 대체로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행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오스트리아에서 시행된 초기 제도와 네덜란드의 제도는 예외). 지난 글(국제노동브리프 2021년 7월호 이슈별 심층분석, 편집자 주)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제도는 여전히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처음에 단기로 시행되었다가 추후 제도가 변경되면서 시행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다.

\* Eurofound(2021), *COVID-19: Implications for Employment and Working Life*, COVID-19 Series, Luxembourg :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pp.45~56, [https://www.eurofound.europa.eu/sites/default/files/ef\\_publication/field\\_ef\\_document/ef20050en.pdf](https://www.eurofound.europa.eu/sites/default/files/ef_publication/field_ef_document/ef20050en.pdf)

# In Depth Analysis

오스트리아의 자영업자 재난지원금과 이탈리아의 지원제도의 경우 도입 당시에는 모두 1회성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였으나 이후 제도가 변경되어 2차로 더 지속적인 지원조치가 시행되었다. 네덜란드에서는 사업주들이 저금리 대출과 월 사회보험료 지원 중에서 혜택을 선택할 수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영업자에게 제공되는 소득보장지원금 수준은 노동시간단축 지원금 제도를 통해 임금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표 1〉 EU 회원국의 자영업자 소득보장지원금 수준(2020년 9월 기준)

국가	지원금 수준		
오스트리아(1) 기업고정비용 지원금	1차	매출감소율 40~60%	비용 25% 보상, 최대 3천만 유로.
		매출감소율 60~80%	비용 50% 보상, 최대 6천만 유로.
		매출감소율 80% 초과	비용 75% 보상, 최대 9천만 유로.
오스트리아(2) 자영업자 및 영세업체 재난지원금	1차	연간 순소득 6천 유로 미만인 경우 정액 보조금 500유로 지급, 연간 순소득 6천 유로 이상인 경우 정액 보조금 1천 유로 지급. 컴백 보너스로 500유로 추가 지급 가능.	
	2차	순소득 감소를 기준으로 소득연계 지원금 지급. 소득 감소분의 80% 또는 월평균소득이 966.65유로 이하인 경우에는 90% 지원. 월 최저지원금 500 유로. 최대 6개월간 월 최대 2천 유로 지급. 컴백 보너스로 월 500유로 추가 지급 가능. 1, 2단계를 합쳐서 1인당 최대 지원금은 3만 유로.	
벨기에	완전 급여	가족이 있는 경우 월 1,614유로, 가족이 없는 경우 월 1,291유로를 각각 정액 지급.	
	부분 급여	가족이 있는 경우 월 807유로, 가족이 없는 경우 645유로.	
키프로스	임금의 60%로 월 최대 900유로 지급.		
체코	근무일 1일당 19유로(최대 1,660유로).		
덴마크	2020년 4~5월은 세금을 제외한 월평균 수익감소액의 75%, 이후에는 90%. 월 최대 3,090유로 지급.		
핀란드(1)	기존 소득연계 실업수당 수급자격이 있는 파트타임 자영업자는 60%, 기존 실업수당 지급대상이 아니었던 풀타임 자영업자(소득 월 1,089.67유로 미만)는 영업일 기준 일 33.66유로 지급.		
핀란드(2)	풀타임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2천 유로 정액 보조금 지급.		
프랑스	1차	신고한 매출 손실액에 대해 월 최대 1,500유로 지급.	
	2차	최대 피해 업종을 대상으로 일회성 수당 2천~1만 유로 지급.	
독일	1인 가구는 월 432유로, 자녀가 있는 경우 250~354유로 추가 지급(임대료 및 난방비 지원금 추가 신청 가능)		
그리스	업종별로 차등 지급. 월 800유로 또는 524유로/300유로.		
이탈리아	정액 지원금 500~1천 유로 지급		
라트비아	영세 자영업자	월평균소득의 50%로 최대 월 700유로 지급.	
	일반 과세대상 자영업자	사회보험적용 월평균소득의 75%로 최대 월 700유로 지급.	

국가	지원금 수준	
네덜란드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인 가구는 월 최대 1,050유로, 2인 가구의 경우 월 최대 1,500유로의 복지수당 지급. 복지수당 대신 3년 내 상환 조건의 연이율 2% 사업 자본금 대출 최대 1만 유로 선택 가능.	
폴란드	최저임금의 80%에 해당하는 정액 보조금. 기존 사업소득 신고금액이 최저임금의 50% 미만인 프리랜서는 소득 전액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세카드 기반 과세대상 소상공인은 290유로의 일시금 신청 가능.	
포르투갈	2020년 3월	월 최대 439유로 지원금 지급.
	2020년 4월	이전 12개월 평균소득을 감안한 지원금 지급(월 최대 635유로).
	2020년 5월부터	최저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최저지원금 도입.
루마니아	최초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총 458유로, 월 277유로)을 지급.
	2020년 3월	중위소득의 75% 지급으로 변경(총 840유로).
슬로베니아	2020년 3월	월 350유로의 정액 보조금 지급.
	2020년 3월 이후	월 700유로의 정액 보조금 지급.
스페인	기존 소득의 70%로 사회보장급여 지급을 위한 공공임금지표인 IPREM(2020년 월 564.9유로)의 80~175% 한도 내에서 지급. 2020년 10월부터 기존 수급자로서 여전히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해 70% 지급. 또한, 정부 시행령에 따라 영업을 중단한 자영업자와 과거에는 가입기간이 짧아서 수급자격이 없었던 자영업자에 대해 대체율 50%의 특별휴업수당이 지급됨.	

주 : 오스트리아(1)은 기업고정비용지원금, 오스트리아(2)는 자영업자 및 영세업체 재난지원금을 가리킴. 핀란드(1)은 사업주들을 한시적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포함시킨 조치를, 핀란드(2)는 1인 자영업자 소득 보장지원금을 가리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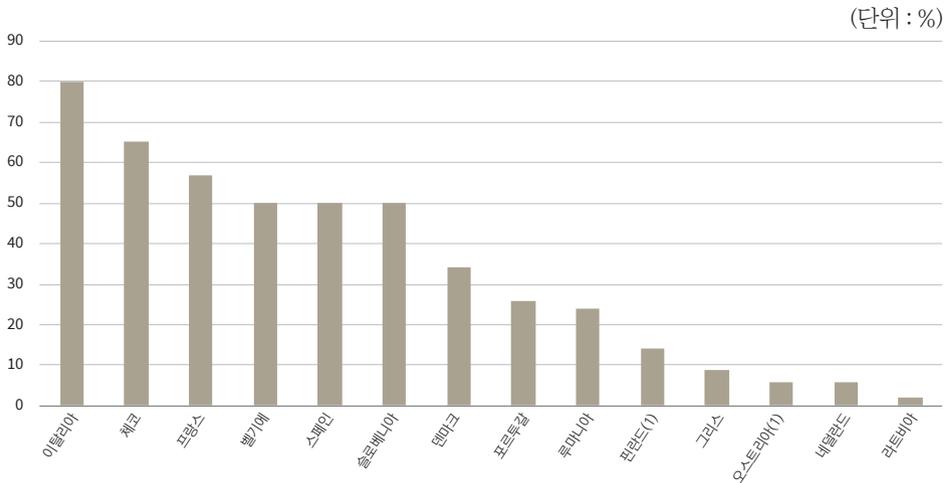
자료 : 유로파운드 국가별 통신원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핀란드, 그리스, 라트비아(일반 과세대상 자영업자), 루마니아, 스페인은 예외적인 경우로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에게 지급하는 소득보장지원금 수준을 동일하게 맞추었다. 오스트리아(기업고정비용지원금과, 2차 자영업자 및 영세업체 재난지원금), 덴마크, 핀란드(소득연계 실업수당 수급자격이 있는 파트타임 자영업자 대상 지원금), 라트비아, 포르투갈, 루마니아, 스페인은 소득과 연계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오스트리아(1차 자영업자 및 영세업체 재난 지원금), 벨기에, 체코,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에서는 정액 지원금이 지급되었다. 소득연계 지원금을 지급하는 국가 중에서는 핀란드를 제외하고 모두 상한선을 두고 있다.

## ■ 지원금 수급 및 예산 집행현황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20개 EU 회원국에서 자영업자 소득보장 제도를 통해 220억 유로의 예산이 약 1천 500만 명에게 지급되었다. 지원금 신청건수는 4, 5, 6월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그림 1]과 <표 2>는 구체적인 수급현황 및 예산 집행현황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시간단축지원금 제도 및 다른 유사한 제도에 비해 자영업자 소득보장지원금 수급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얻기가 더 어렵다. [그림 1]의 데이터 일부는 추정치이므로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현재 가용 데이터로는 수급자격 범위나 소득대체율과의 연관성 등과 같은 지원금 수급 패턴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리스, 라트비아, 네덜란드, 루마니아와 같이 지원금 수급대상 범위가 제한적인(특정 업종만 지원금 수급 대상임) 경우 수급률이 낮다. 오스트리아의 기업고정비용지원금 제도도 수급률이 낮는데, 오스트리아 정부와 사회적 파트너들은 그 원인을 소득감소율이 30% 이상임을 입증해야 하며, 신청절차가 상대적으로 복잡(아래 내용 참조)하고 회계 주기를 이유로 비교적 규모가 큰 업

[그림1] EU 회원국의 자영업자 소득보장지원금 수급률(2020년 3~9월)



주: 오스트리아(1)은 기업고정비용지원금, 핀란드(1)은 자영업자 소득보장지원금을 의미함.  
폴란드는 자료가 없어 제외됨.

자료: 유로파운드 국가별 통신원 자료와 2019년 EU 통계청(Eurostat) 자영업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표 2> EU 회원국의 자영업자 소득보장지원금 지급 및 예산집행 현황(2020년 3~9월)

국가	수급현황	예산	예산 집행현황
오스트리아(1)	2020년 9월 말까지 신청건수 4만 4천 건, 2만 6,261건 지급	1차:80억 유로 2차:40억 유로 예정	2020년 9월 30일 기준, 2억 5천만 유로 승인 및 1억 7,280만 유로 집행
오스트리아(2)	2020년 9월 30일 기준 신청 승인건수 110만 건	20억 유로 2021년 2억 유로 추가 배정	2020년 9월 기준 5억 9,500만 유로
벨기에	2020년 3~7월에 52만 7천 건 지급	사전 배정된 예산 없음	19억 유로
키프로스	총 4만 9,500명 중 2만 2천 명에게 지급	7억 4,500유로 (한시적 실업급여 포함)	자료 없음
체코	2020년 3~6월에 1백만 건 지급	사전 수립된 예산 계획 없음	사전 수립된 예산 계획 없음
덴마크	7만 256개의 업체/자영업자가 보조금 수급	10억 유로	5억 6,400만 유로
핀란드(1)	2020년 4~6월에 4만 1천 건 지급	1억 6천만 유로	8,800만 유로
핀란드(2)	3만 4천 건 지급	2억 5천만 유로	8,300만 유로
프랑스	173만 3천 건 지급	89억 유로	60억 유로
독일	2020년 3~4월, 취업자 사회부조(SGB II) 신청자 수 7만 명 증가, 이 중 3만 2천 명이 자영업자임.	자료 없음	자료 없음
그리스	2020년 3~4월, 48만 개 업체가 지원금 800유로 수급 2020년 5월까지 17만 8천 개 업체가 지원금 수급	자료 없음	약 5억 유로
이탈리아	총신청건수 5백만 건 중 승인건수 410만 건	90억 유로	약 90억 유로
라트비아	2020년 3~7월에 4,176명의 자영업자가 9,658건의 신청서 제출. 이 중 3,047건 반려됨(사회보험료 최저 기준에 미달)	별도 예산 없음	220만 유로
네덜란드	2020년 4~6월에 6만 4,140명의 자영업자가 이용	38억 유로	자료 없음
폴란드	현재까지 205만 건의 지급	별도 예산 없음	11억 유로
포르투갈	신청건수 20만 9천 건, 16만 3천 명이 수급. 수급자 중 약 90%가 영업 전면 중단을 이유로 지급받음.	1억 8,500만 유로	2020년 7월까지 1억 3,700만 유로
루마니아	신청건수 35만 4천 명, 27만 9천 명이 수급.	3억 7천만 유로	약 1억 5천만 유로
슬로베니아	2020년 4~6월에 9만 4천 건 지급	8천만 유로	자료 없음
스페인	2020년 6월까지 150만 명이 수급	자료 없음	자료 없음

주 : 오스트리아(1)은 기업고정비용지원금을, 오스트리아(2)는 자영업자 및 영세업체 재난지원금을 가리킴.  
핀란드(1)은 사업주들을 한시적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포함시킨 조치를, 핀란드(2)는 1인 자영업자 소득보장지원금을 의미함.

자료 : 유로파운드 국가별 통신원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체의 신청이 늦어진 점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지원금 수급을 위한 소득감소율 기준이 오스트리아보다 높은데도 수급률은 더 높은 국가(프랑스, 스페인)도 있다. 따라서 향후 정책입안을 위한 교훈을 얻기 위해서는 상세한 수급현황 데이터 수집과 지원금 수급에 나타난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핀란드 역시 지원금 수급률이 예상보다 낮다. 핀란드의 자영업자 소득보장제도에 배정된 예산은 2억 5천만 유로로, 1인 자영업자 약 12만 5천 명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2020년 8월까지 실제 집행된 금액은 약 8천 500만 유로에 불과했다. 핀란드 경제고용부 대변인의 발표에 따르면, 그 이유는 2020년 3월 이후 소득이 30% 이상 감소했음을 입증하라는 소득감소요건이 추가된 것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많은 신규 1인 자영업자가 수급요건인 영업 개시일 기준과 연간 2만 유로 이상의 사업소득 입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도 이유에 포함된다.

전례 없는 제도가 시행되었으며 지원금 수급 수요가 높아, 많은 회원국에서 지원금 수급신청건 처리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지급 정체가 발생하였다. 새로운 제도에 대한 홍보는 대체로 잘 이루어졌으나, 일부 국가에서 수급자격 요건의 차이와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기업고정비용지원금 신청절차가 상당히 복잡해서 총 40페이지에 달하는 해설가이드와 FAQ 자료가 제작되었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회계사의 도움을 받았다.

그리스에서는 기업단체에 의하면 여러 신설법 제정 및 법 개정, 신청서 제출을 위한 여러 유사한 절차, 거기에 비교적 빠듯한 서류제출 마감 일정으로 혼란이 야기되어 제때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지원금 수급에서 제외되는 일도 있었다. 프랑스에서는 팬데믹 1차 대응행 이후로도 지속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업체를 중점 대상으로 한 2차 지원금에서 수급자격 요건이 추가되자 자영업자 대표 단체들이 접근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온라인 신청과 수급자격 입증 간소화를 통해 신청이 용이해진 후에도 신청건수 자체가 워낙 많다 보니 지원금 지급이 일부 지연되었다. 스페인에서는 지급 속도가 문제였는데, 사용자단체의 주장에 의하면 이로 인해, 특히 팬데믹 초기에 유동성 문제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탈리아에서는 2020년 4월 첫째 주에 신청이 쇄도하면서 (전체 신청건의 60%가 이때 접수됨) 지원금 지급이 1개월 이상 지연되기도 하였다. 슬로베니아에서는 온라인 신청 시

스텝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지원금을 받기까지 1개월 넘게 걸리기도 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비교적 많은 신청건이 반려되었는데(라트비아, 루마니아) 그 이유는 수급자격 요건과 증빙서류가 복잡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분권화된 국가의 경우에는(핀란드의 1인 자영업자 소득보장지원금 제도), 지역별로 규정을 다르게 해석하여 적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중앙집권화된 국가와 지방분권화된 국가 모두 제도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 마련을 위해 관계 당국의 인력 및 정보기술개발에 상당한 추가 비용을 투입하였다. 이후 담당기관은 예산집행의 적정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오남용 사례는 없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오남용에 대한 (비교적 제한된) 우려 외에도, 소득감소요건이 없거나 있더라도 기준이 낮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원금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일부 회원국에서는 해당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자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사중손실 효과에 대한 우려도 있다(체코와 이탈리아).

제도 시행기간과 관련하여, 기업단체 및 자영업자 대표들은 이러한 조치들이 너무나 성급하게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특히 팬데믹 대유행 위협이 여전히 실재하는 현 상황에서는 지속적인 전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더 나아가, 이번 위기로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미비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던 논의가 부각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다시 활발해지게 되었다(Wukovits-Votzi, 2020).

## ■ 소득보장제도의 파급효과

EU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9년 2분기부터 2020년 2분기까지 노동시장에서 자영업자의 비중은 약 2% 감소하였으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1인 자영업자에 비해 팬데믹의 충격을 더 크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표 3 참조). <표 3>은 이러한 충격이 음식·숙박업, 금융 및 보험업, 행정 및 지원서비스, 도소매업 등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상 밖으로 예술, 연예 및 휴양업의 자영업자 비중은 약간 증가하였다.

2020년 7월에 실시된 유로파운드의 「코로나19 시기의 생활과 일(Living, working and

<표 3> EU 27개국 산업별 자영업 종사자 비중 변화(2019년 2분기~2020년 2분기)

(단위 : %)

산업	전체	남성	여성
전체 산업	-2.1	-1.7	-2.4
농업, 임업 및 수산업,	-3.5	-1.9	-7.9
도소매업, 자동차 및 이륜차 수리업	-6.6	-7.0	-5.6
전문, 과학 및 기술업	2.3	1.5	3.6
건설업	-4.0	-3.5	-14.5
보건 및 사회사업	2.9	8.1	-0.3
제조업	0.5	2.0	-4.6
기타 서비스업	5.9	13.5	2.7
음식·숙박업	-8.6	-8.7	-8.5
운수창고업	-3.9	-3.5	-7.1
정보통신업	1.6	0.7	5.6
행정 및 지원서비스	-7.2	-10.5	-0.8
예술, 연예 및 휴양업	1.5	1.9	0.8
교육	-3.4	-1.6	-4.8
금융 및 보험업	-7.6	-6.1	-11.7

주: 산업분류는 NACE Rev. 2, 유럽 표준산업분류 2차 개정판(Statistical Classification of Economic Activities in the European Community Revision 2)을 따름.

자료: Eurostat.

COVID-19)」 2차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자영업자의 27%가 향후 3개월 내에 폐업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답변을 좀 더 살펴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약 3/4과 1인 자영업자의 56%가 어떤 형태로든 사업을 지속하고자 기존 사업모델을 변경하는 등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폐업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2020년 6월에 그리스 소상공인협회(GSEVEE) 산하 연구소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1인 자영업자의 50% 이상, 소기업의 40% 정도가 현재 보유한 자금으로는 한 달 정도만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독일의 정기적인 패널조사(2020년 4~5월에 인터뷰 실시) 결과에 의하면, 코로나19 위기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절반이 3개월간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자금을 갖추고 있었다. 또한 이 조사 결과, 팬데믹으로 피해를 입은 임금노동자의 경우 노동시간단축지원금 제도의 지원을 받아 2020년 4~5월에 소득감소액이 평균 400유로였던 반면,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소득감소액이 3배

나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사업자들은 저축에 의존하거나 복지수당을 신청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았다(Kritikos et al., 2020).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런던정경대(London School of Economics)의 조사 결과 (경제가 1차 봉쇄조치로부터 어느 정도 회복하고 있었던) 2020년 8월에도 영국의 자영업자 5백만 명 중 약 60%에 가까운 이들이 정상적인 상황에 비해 여전히 일이 적었다. 자영업자의 1/5은 사업을 완전히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었고, 25세 미만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이 수치가 60%에 근접하였다(Blundell et al., 2020).

코로나19 위기가 상당수 자영업자의 소득과 사업 지속가능성에 상당한 연쇄효과를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자영업자를 위해 새롭게 시행되거나 개정된 소득보장제도에 대해 대부분 회원국의 정책입안자, 사회적 파트너 및 자영업자 대표 단체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 정책적 함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장 공백은 수년간 EU 전체와 회원국에서 정책 논의의 주요 주제였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의 재정난을 방지하고 빠르게 증가하는 기업 도산을 막기 위해 자영업자들에게 고정비용 등과 관련해 사업자를 지원하는 다른 조치 외에 신속하게 소득보장지원금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소득보장 조치들은 대부분 매우 급하게 도입되었다. 수급절차를 간소화해서 정액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자영업의 형태가 매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천편일률적인”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문제 제기와 함께 사중손실 발생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또한 많은 회원국에서 현행 지원금 수준이 낮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소득감소요건을 강화하여 여러 가지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방식을 채택한 국가들의 경우, 행정절차가 복잡해서 자영업자들은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도움을 받아야만 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초기 제도의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이후 제도를 개선하거나 수급요건을 설명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 노력을 기울이는 방식으로 보완된 사례가 많았다. 그리고 지원금 수준과 매출액 감소 수준을 연계할 경우 자영업자들이 최대한 사업 매출을 유지하고 사업모델을 조정하려는 인센티브를 저해하

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는 더 많은 자영업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급절차를 간소화해야 할 필요와 제도 오남용 또는 원치 않는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을 표적화해야 할 필요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아야 하는 딜레마를 보여준다.

지원금 신청건수가 증가하면서 담당 공공행정기관의 업무가 가중되고, 이는 지원금 지급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러 회원국의 이해당사자들은 지원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후속 감사 및 감독 절차도 힘든 과정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소득보장지원금 제도는 전반적으로 매우 필요한 조치였다. 특히 시행 중인 기타 지원제도와 병행하는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적절한 완충 장치를 제공하였고, 장기적으로는 자영업자의 사회보장 및 소득보장 개선을 위해 교훈을 남겼다고 생각된다. **◀▶**

---

---

## 참고문헌

---

---

- Blundell, J., S. Machin, and M. Ventura(2020), “COVID-19 and the Self-employed: 6 Months into the Crisis”, COVID-19 Analysis Series, No. 012, Centre for Economic Performance, <https://cep.lse.ac.uk/pubs/download/cepcovid-19-012.pdf> (검색일 : 2021.6.30).
- Kritikos, A., D. Graeber, and J. Seebauer(2020), “Corona-Pandemie wird zur Krise für Selbständige”, DIW aktuell, No. 47, Deutsches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https://www.econstor.eu/bitstream/10419/222877/1/1702052729.pdf> (검색일 : 2021.6.30).
- Wukovits-Votzi, N.(2020), “Solo-Selbstständige leben nicht nur jetzt riskant”, *Die Presse*, April 1, <https://www.diepresse.com> (검색일 : 2021.6.30).